

지역 소식 통

고창경찰,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범범 활동 강화

고창경찰(총경 한도연)은 지난 25일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진단팀(CFO)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통사찰 8개소를 포함해서 총 34개의 사찰·암자를 대상으로 CFO가 현장으로 진출하여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취약점에 대해 보안사항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찰 내 CCTV 설치 여부, 방범창 등 물리적 방범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범죄예방 수칙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에 집중하였다. 또한 방범협력단제를 통한 합동 순찰 등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찰을 탄력순찰 노선으로 지정해 주기적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장에인복지관 전통휠체어 무상점검

정읍시장에인복지관이 장애인 주간을 맞아 이동보조기기 무상점검을 실시하며 장애인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나섰다.

복지관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전통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상점검·경정비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배터리 상태,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부품, 동작 상태 등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작업은 전액 무료로 지원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이상 유무를 점검받았고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수리를 미루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읍=김대환기자

동학혁명 정신 · 가치를 기리다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열려

고창군은 지난 25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했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정기백 이사장) 주관으로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전국 유족회 및 기념사업회,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군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태권유랑단 녹두’ 축하공연으로 서막을 열었으며, 제18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음성 입성재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램으로, 1894년 4월 25일 무장기포의 합성과 울림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제18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영우 총북대 명예교수가 수상했으며, 신영우 교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정탄진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은 당시의 의지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하며 선열들의 뜻을 되새겼고,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은 ‘무장음성 입성재현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활력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백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7종 보험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예기치 못한 위험 대비

정읍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총 7종에 달하는 다양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망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상해, 감염병,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

망·후유장해는 물론,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8개 항목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대법원 관례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자전거보험 역시 정읍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 이용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에서 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6월 이상 입원 시 추가 지

원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있다.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농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체보험 형태로 시민 부담 없이 가입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바다가는 달’ 캠페인 K-해양관광 거점 도약 시동

부안군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력하여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부안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전북 해양관광 트레킹 모니터 투어’를 운영해 트래커 및 서포터즈 등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전북 서해안 섬 지역의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조명하고 체험형 해양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포인트를 따라 걸으며 섬과 해안 지형이 품고 있는 고유의 정치와 관광 잠재력을 체험했다.

부안의 대표 섬인 위도는 ‘고슴도치섬’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위도 해안선을 따라 불규칙하게 뻗은 지형과 전역에 흩어진 크고 작은 봉우리들, 그리고 바위 군락이 마치 고슴도치의 등에 난 뾰족한 가시를 연상시킨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관할 결정에 깊은 유감”

부안군의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후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부안군의 지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연계성, △새만금 개발과정에서의 군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헌, △부안측 관광레저용지와의 통합관리 개발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용역 보고회... 총 사업비 170억원 2026년 준공 목표

고창군이 지난 25일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설계용역은 지난해 9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한 뒤 본격 추진 중이며, 약 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김영식 부군수, 관련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수행 기관인 (주)건축사무소 오비비에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심원면 만들라에 조성 중인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는 총 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센터는 고창갯벌의 보전과 모니터링 등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생태관광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뛰어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역센터를 고창갯벌 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갱년기 건강교실’ 2기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중장년 여성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갱년기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2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읍시 보건소는 40~60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 예방과 개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아름다운 4060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2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며,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기 프로그램은 5월 12일부터 6월 19

일까지 매주 월·화·목요일 보건소 교육실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기술훈 체조와 건강체조를 비롯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원예치료, 아로마테라피, 차문화 체험 등 정서적 안정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도 더해져 갱년기 변화에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참여자에 대한 갱년기 자가진단과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